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 흥련

CAST



장화 권봉정(수석) 흥련 오수연



아버지 이성원 어머니 강미향 첩 김경미 장쇠 박상용



이 공연은 어린이 구호를 실천하는 유니세프를 후원합니다.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 사진전시회도 보시고
자율모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세요.
모든 수익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액 전달되어
굶주리고 병든 아동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우리에게도 옛날이 있었습니다.
동구 밖까지 배달하면 허기로 지쳐 쓰러지던 옛날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하늘 끝까지라도 뛰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 내손을 잡아 울린 이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내가 오늘 일으켜 세우는 아이는 훗날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세프는 어린이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로 전세계 156개 나라와 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해 영양과 보건, 식수공급, 기초교육,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 보호 등의 기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에 따라 국적과 인종, 이념, 성별, 종교 등과 관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전합니다.

유니세프를 통해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세요!
전화 080-733-7979, 팩스 02-723-8219, Email psfr@unicef.or.kr로 연락하시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 흥련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unicef
유니세프한국위원회
KOREAN COMMITTEE FOR UNICEF

어린이 보호와 가족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공연은
유니세프를 후원합니다.

2008. 7. 17(목)-18(금) 20: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무료)

(※ 우천시 문화회관 중극장 선착순 입장)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전래동화 <장화홍련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2008 여름마당춤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

부산시립무용단의 재주많은 춤꾼들이 춤과 노래, 연기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의 놀이마당!

프롤로그 태몽 - 장미와 연꽃

귀신의 소문이 바람처럼 몰려다니는 마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 귀신들이
한바탕 놓고 간 자리에 큰 꽃송이 두 개(장미와 연꽃)가 남겨져 있다.
꽃잎이 벌어지려는 듯더니 속에서 어여쁜 두 계집아가이 나타난다.

1장 재롱잔치

2장 저승사자

3장 물놀이

4장 천둥번개

5장 비극의 시작

6장 장화, 연못에 들다

7장 산 자의 슬픔

8장 홍련의 죽음

9장 저승

10장 원귀 나타나다

11장 냇두리

12장 소원을 풀다

13장 진혼제

에필로그 환생

한(恨) 되었던 악연 씻어내고 못다한 부녀(父女)의 연분 다시 잇고자
쌍둥이로 환생한 두 자매는 세상의 꽃으로 만발하여 여름밤
은하수 같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었다.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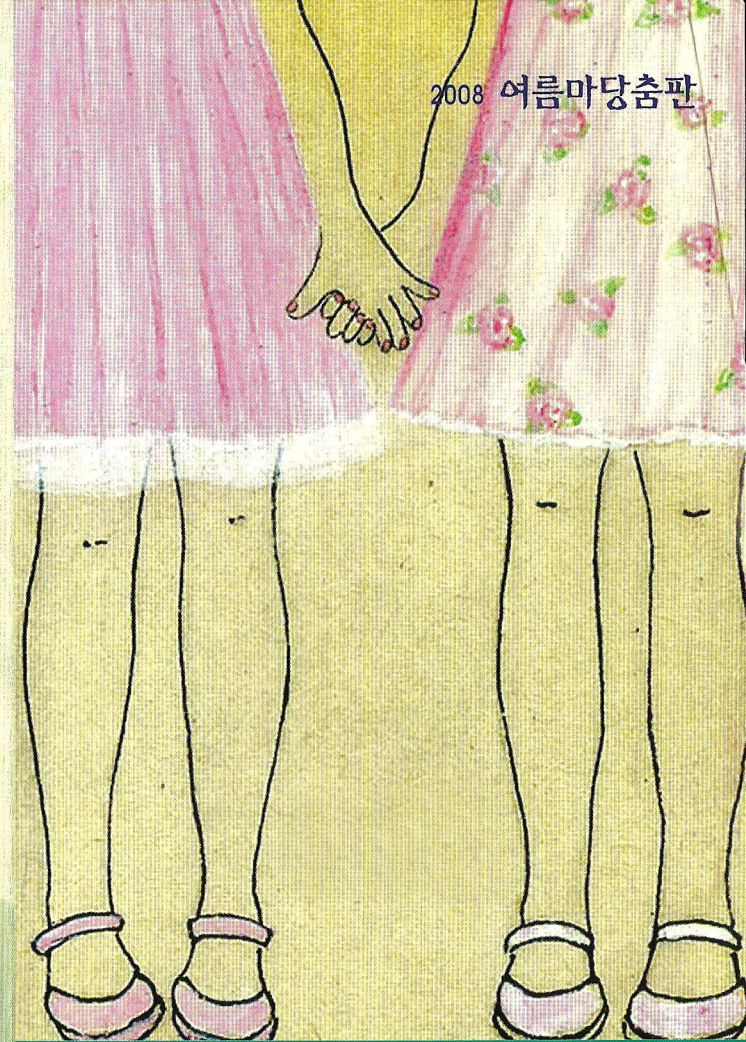
장화홍련



안무·구성 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Staff

홍련지도	이윤혜	연극감독
각색·대본	하현정	출연
연출	오정욱	음악감독
영상	김상진	상연
사행	이병승	행장
조음	김철현	명품
소도구	김성경	행장
기획	박소윤	소품
홍소진	김태안	보행
design & photo	이화성	행장
	장준	행장



공연안내

제30기 시민무용교실 및 제 19기어린이한국춤 교실
2008. 7. 28(월)~8. 1(금) 국제회의장

2008 한여름밤의 춤작품전
2008. 8. 22(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 59회 정기공연
2008. 11. 5(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